

새벽을 알리는 부귀공명의 상징 - 을유년(乙酉年) 닭띠 이야기 -

강 욱
 자유기고가

새해는 을유년(乙酉年) 닭의 해이다. 12간지(干支)의 하나인 닭은 음양으로 따지면 음이고, 오행(五行)으로 따지면 금(金)이며, 방향은 서쪽에 해당된다. 한편 유시(酉時)는 오후 5시~7시에 해당되며, 이 시간은 닭이 둥지에 들어가는 시간이다.

한국인 각자마다의 심성에 투영된 동물 이미지, 그것이 띠이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자기가 무슨 띠인지는 누구나 알고 있다. 그만큼 띠는 아직도 우리의 생활과 의식 속에 강하게 남아 있는 전통관념 중의 하나이다.

닭의 상징적 의미는 계성(鷄聲)에서 잘 드러난다. 적막한 새벽의 공기를 가르고 울려 퍼지는 닭의 울음소리는 자연의 순환을 알려 주는 회전축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것은 어둠이 물러가고 밝음이 다가옴을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계성은 인간에게 온갖 희비를 엇갈리게 하면서 우리의 민속에서 형상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닭은 이미 신라의 시조설화와 관련되어 등장한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김알지의 탄생담에 의하면 “신라왕이 어느 날 밤에 금성(金城) 서쪽 시림(始林) 숲 속에서 닭의 울음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호공을 보내어 알아보니 금빛의 꿩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고 흰 닭이 그 아래에서 울고 있었다. 그래서 그 꿩을 가져와 열어보니 안에 사내아이가 들어 있었는데, 이 아이가 경주김씨의 시조가 되었다.”고 하였다. 그 뒤 그 숲의 이름을 계림(鷄林)이라고 하였으며 신라의 국호로 쓰이기도 하였다.

닭은 예부터 가축으로 사육되면서 우리 조상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닭이 사육된 것은 삼국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야생의 멧닭이 울안에서 사육되면서 가축화 된 것이다. 닭은 가축 중에서 잡식성으로 아무 것이나 잘 먹고 각종 질병에도 강하기 때문에 농아기